

지역별 창업활동 및 여건분석*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Conditions for the Korean Local Government*

김 공 수, 이 국 용
군산대학교

Kim, Kong-Soo, Lee Kook-Yong
Kunsan National Univ.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시·도)별 창업활동과 창업여건의 영향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기업 지원현황, 지역별 중소기업 부도 및 신설법인 현황, 벤처기업 현황, 산업분류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현황, 산업시설용지 분양 현황, 지자체별 창업기업 지원현황 등을 이용하여 지역별 창업여건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별로 창업여건과 창업활동의 영향력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지자체 창업여건 및 환경에 따라 창업활동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역내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제공해야 함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별 창업여건 차이가 향후 지역내 창업예비자들의 창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지자체의 창업지원정책에 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실무적인 시사점을 보여 주었다.

I. 서론

경제활성화와 성장은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새로운 기업들의 꾸준한 공급이 창업과 기존기업들의 혁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는 신산업분야의 개발과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1] 지역마다 창업 여건이 다르며, 통상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을수록 지역내 창업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통상적으로 창업을 위한 각종 여건과 지자체별 지원 등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창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진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육성사업체수, 신설법인 및 부도법인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운영중인 산업단지 지정면적, 창업보육센터 등의 지원 시설은 지자체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다르며, 지자체별로 설치, 조성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역시 창업을 촉진하는 주요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자체 기준 창업보육센터, 산업단지 지정 면적,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 등을 비교하여 지자체별로 창업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자체별 중소기업사업체수 증가율, 신설 및 부도법인

증가율 등과 비교하여 창업여건과 창업활동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자체별 창업여건 분석

2017년 기준 창업보육센터는 265개소가 있으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48개소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 34개소, 경북 22개소, 경남 18개소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지자체별 창업보육센터 현황(2017년 기준)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개수	34	18	12	5	13	14
비율(%)	12.8	6.8	4.5	1.9	4.9	5.3
순위	2	4	12	14	11	10
지자체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개수	1	2	48	15	15	17
비율(%)	0.4	0.8	18.1	5.7	6.4	5.7
순위	17	16	1	7	7	6
지자체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개수	15	12	22	18	4	265
비율(%)	5.7	4.5	8.3	6.8	1.5	100.0
순위	7	12	3	4	15	

표2는 광역지자체 산업단지 지정면적(km)과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영중인데,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4A01036638).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한 육성기금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표 2. 지자체별 산업단지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km², %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면적(km ²)	3,194	43,094	44,329	20,245	28,186	70,434
면적대비비율(%)	0.5	5.6	5.0	2.0	5.6	13.0
연평균성장률(%)	3.4	5.3	10.3	2.0	1.8	-0.1
지자체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면적(km ²)	89,935	7,834	240,646	25,772	69,911	109,115
면적대비비율(%)	8.5	1.7	2.4	0.2	0.9	1.3
연평균성장률(%)	1.4	7.3	3.8	5.9	5.2	0.3
지자체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면적(km ²)	130,578	236,468	145,224	129,289	1,609	
면적대비비율(%)	1.6	2.0	0.8	1.2	0.1	
연평균성장률(%)	3.0	0.4	3.7	1.9	1.3	

표 3.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2013년에서 2016년)
단위 : 억원, %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육성기금(2016년)	12,405	1,359	0	2,269	0	1,004
예산대비 비율(%)	4.5	1.3	0	2.8	0	2.6
연평균 증가률(%)	-1.5	12.8	0	2.8	0	1.4
지자체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육성기금(2016년)	648	76	12,528	1,834	1,364	1,201
예산대비 비율(%)	2.0	0.7	6.6	3.7	3.4	2.1
연평균 증가률(%)	1.0	81.5	0.7	6.9	23.3	-8.4
지자체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육성기금(2016년)	2,275	2,026	3,237	397	334	42,960
예산대비 비율(%)	4.3	3.1	4.1	0.5	0.8	3.3
연평균 증가률(%)	0.5	-2.8	-1.9	-36.0	2.0	-0.7

2016년 기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조 2,960억원으로 지자체 예산총액 12조 9,678억원대비 약 3.3%에 해당한다. 규모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의 순이었다. 이를 지자체 예산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6.6%로 가장 높았으며, 하위 지자체로는 대구와 광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경남 0.5%, 세종 0.7%, 제주 0.8%, 부산 1.3%로 분석되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81.5%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23.3%, 부산 12.8%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경남 -36.0%, 충남 -8.4%, 전남 -2.8%, 경북 -1.9% 등으로 분석되어 지자체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Ⅲ. 지자체별 창업활동 현황

광역지자체별로 창업활동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체수 변화, 지역별 신설법인수, 부도법인수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제조기업 사업체수, 신설법인, 부도법인 증가율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광역지자체별 중소기업 현황 분석 결과
(2005년-2016년)

지역	중소기업 연도별 증가율(%)			지역	중소기업 연도별 증가율(%)		
	제조기업 사업체수 연평균 (2005년~2014년)	신설법인 (2008년~2016년)	부도법인 (2008년~2016년)		제조기업 사업체수 연평균 (2005년~2014년)	신설법인 (2008년~2016년)	부도법인 (2008년~2016년)
서울	-4.3	8.7	-15.3	강원	0.5	11.8	-16.3
부산	-1.2	7.2	-12.1	충북	3.5	9.4	-9.2
대구	-0.3	8.8	-13.2	충남	3.2	9.2	-13.0
인천	-0.5	10.8	-13.8	전북	2.5	9.8	-12.3
광주	0.2	11.1	-16.3	전남	1.4	9.6	-14.5
대전	2.5	9.9	-9.1	경북	3.0	9.9	-9.5
울산	4.1	8.9	-23.1	경남	2.7	7.6	-9.6
세종	6.3	37.1	14.9	제주	1.9	19.1	-8.3
경기	1.7	11.3	-8.0				

IV. 결론

17개 광역지자체로 창업을 촉진하는 요인인 창업여건(창업보육센터 현황, 산업단지면적 및 지자체면적대비 산업단지조성비율,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지자체 예산대비 비율 등)을 살펴보았으며, 창업활동 결과로 제조기업사업체수 증가율, 신설법인수 증가율, 부도법인수 증가율 등을 각각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창업여건의 경우 경기, 서울, 경북, 세종 등이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실제 창업활동 분석 결과 창업여건이 우수한 지자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창업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수준인 서울, 부산, 경기 등의 사업체수 증가율보다는 비교적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이 더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신설법인 증가율과 부도법인 증가율 역시 여건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자체별 창업여건 조성의 결과가 바로 창업활동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정책 수행에 따른 시차(Time GAP)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어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창업여건과 창업활동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 [1] 박윤재, 윤현덕, 김영수, "한국의 창업여건과 활성화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 제 23권, 제 3호, 157-184, 2001.
- [2] 채지민, 이원호, "기술창업 생태계 분석 및 구축방안", 국토지리학회지, 제 51권, 제 1호, 81-92, 2017.